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노동자의조직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노동자의조직
1881 년 12 월 10 일, 24 일

Le Revolté

kr.theanarchistlibrary.org

1881 년 12 월 10 일, 24 일

차례

1 장		3
2 장		6

트라우에서의파업대오가도시의모든식량을요구하고, 사회적부에대한 자신의권리를요구하는것이개념의힘이다.

하지만우리는파업투쟁이자본에대항하는전쟁의유일한동력이아님은 명확히해야한다. 파업에있어, 모든투쟁은노동자들에게지워진다. 하지만다른집단들과개인들역시수행해야할역할이있다. 그리고그들이활동할수있는, 효과적일수있는방법은지역적상황과시대적요구에따라달라질것이다. 그들의역할을여기에서논하는것은크게의미가없을것이다. 각각의그룹들은적극적이고효과적이되기위하여노동자운동의대의를강화하기위한새롭고독창적인방법을발견할것이기때문이다. 우리에게가장중요한것은다음원칙에합의하는것이다.

혁명의목적은사회적부의수용이어야한다. 그리고현재부를소유하고있는자들과대적하기위해우리는조직해야한다. 우리는이목적을달성하기위한광대한노동자의조직을만들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저항의조직과자본에의전쟁은노동자조직의주된목적이되어야한다. 그리고그방법론은부르주아정치의무의미한투쟁으로그쳐서는안된다. 가능한모든수단을통해사회적부를독점하고있는자들에대항하는투쟁을만들어야한다. 그리고파업은훌륭한조직수단이며, 가장강력한투쟁의무기다.

만약우리가다가올몇년내에이러한조직을만들수있다면, 다가올혁명은실패하지않을것이다. 인민의소중한피는무의미하게흐르지않을것이다. 그리고노예와같은노동자들은이투쟁에서승리하고평등, 연대, 노동에기초한인간사회의새시대를열것이다.

1 장

부르주아사회가점점더혼란해지고, 국가가붕괴하고, 유럽에혁명의도래가다가오고있음을인지할수있는가운데, 우리는만국의노동자들의가슴에그어느때보다더단결하고, 어깨를맞대고서며, 조직하고자하는열망이차오르고있음을인지한다. 특히코뮌의패배이후모든노동자조직이분쇄당한프랑스에서, 이열망은어느때보다더가시적이다. 프랑스의거의모든산업지역에는합의를만들고단결하고자하는운동이존재한다. 심지어농촌에서조차노동자들은스스로의권리를지키기위한목적에만복무하는기구를만들고자하는요구를만들어내고있다.

지난 3 년간이영역에서노동자들이만들어낸결과는놀랍다. 하지만현존하는혁명적사회주의정당이수행중인범죄적인일들을볼때, 그리고우리의반대파들에비해미약한우리의자원을바라볼때, 다가올혁명의날에구체제질서의해소를향해전진할수있는실질적세력을만들기위해야직우리에게남아있는과업을솔직히직시할때, 우리는남아있는과업은아직어마어마하게많으며, 우리가이제야겨우진정한노동운동을만들어내기시작했다는것을인정해야만한다. 위대한노동대중은아직 3 년전의잔재를떨쳐내지못했다. 스스로를“노동자계급정당”이라는가식적인이름으로부르는집산주의자들은여전히그들이선거운동을시작할때바라던바, 노동자들의폭발적정치세력화를만들어내지못하고있다. 그리고노동자들이급진당에의존하면의존할수록, 당은기반을얻기는커녕오히려잃게된다. 아나키스트그룹의경우, 대부분의그룹은그들에게이론적선전의영역과구체적행동의영역에서추동력과활동력을줄수있는다수노동대중과의일상적접촉을만들지못하고있다.

이들이원하는것이그것이라면, 그들이그저환상속에살도록두자. 우리는모든과업을그전체로써받아안고자한다. 그리고미성숙한승리를선언하기보다는다음과같은질문을던지고자한다. 우리가현재조직을더욱발전시키기위해무엇을해야하는가? 전체노동대중내부에서우리의영향력을확대하고, 이를통해혁명의그날에노동계급의열망을쟁취할의지적이고불가침의세력을구성하기위해서는무엇을해야하는가?

더넓은발전을추구하는, 세력이되고자하는모든조직에게있어, 운동의최전선에있는사람들이조직의최종목적을명확하게하는것은중요한일이다. 그리고이목적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면, 그목적에합치하는행동방침을구체화해야한다. 이중요한지점은지금까지무시되어왔지만, 더멀리나아가고자한다면반드시필요한일이다. 이러한사전적합의는조직이성공할가능성을만들기위해필요불가결한전제조건이다. 하지만지금까지모든조직들이동일하게진행하여온것이다. 보수당을, 보나파르트주의당을, 기회주의자들을, 급진당을, 이전시대의정치적음모꾼들을

보라. 이당들은각각잘정제된목적가지고있었고, 그들의행동수단은 그목적에절대적으로합치했다.

이당들의목적과수단을이글에서분석하는것은너무도지리멸렬한일 일것이다. 그렇기에나는하나의예시를들어다른모든예시를대신하려한다. 급진당혹은비타협주의당의예시를들어보도록하자.

그들의목적은분명하다. 급진당은프랑스에서개인의한통치를철폐하고미국의모델에따라민주공화국을설치하려한다고말한다. 그들은 상원을철폐하고, 보편선거라는단순한방식으로선출된단원제를구성하고, 정교분리를이룩하며, 언론·시위·단결에대한절대적자유를확보하고, 지방자치와국민군을주장한다. 이것들이야말로그들의강령에있어 가장중요한것들이다. “그리고노동자가이체제에서더행복해질것인가? 그리고그결과로써, 노동자가사장의자비에기대는임금노동자가되지않을수있는가?”이문제들은그들에게는중요하지않다. 그들은이문제는나중에정리될수있다고말한다. 사회적문제의중요성은민주적국가가만들어진다면미래의언젠가는정리될수있는것으로격하된다. 현존하는기구들을전복하는것은그들에게관심사가아니다. 그들은단지그기구들을수정하고자한다. 그리고그들에의하면, 입법기구는이것을매우쉽게할수있다. 급진당의모든정치강령은법령이라는수단으로압축될수있다. 그리고그들에의하면이것은권력을현재의권력자들에게서빼앗아급진당에게넘겨준다며다해결될것이다.

이것이급진당의목표다. 그목표가달성가능한것인지여부는제쳐두고, 우리에게중요한것은그들의수단이그목적과합치하는가이다. 급진당은정치적개혁의옹호자로서, 집권을위한작업을하는정당을구성한다. 급진당은통치력의중심을민주주의적미래로재정렬하는것을예상하면서, 최대한많은당원들이국회에, 지방의회에, 다른모든정부기관에선출되어권력을획득하는것을원하였다. 그들의적은현재행정부였던만큼, 그들은행정부에대항하는조직을만들어행정부에대항하는전쟁을담대히선포하고, 그몰락을예비했다.

그들에게소유는신성불가침의것이였다. 그리고그들은사적소유에어떠한수단으로도반대하고싶어하지않았다. 그들의모든노력은정부에서권력을확보하는것에향해있었다. 그들이인민에게약속하는경제개혁은그저현재정부를전복시키고더민주적정부를수립하는목적에만복무한다.

이정치적강령은우리가추구하는것이아니다. 우리에게분명한것은, 사적소유의체계를선제적으로변혁하지않으면실질적사회변혁은불가능하다는것이다. 하지만, 강령자체에대해서는비판적으로바라보다라도, 우리는급진당의행동방향이그목적에부합한다는사실은인정해야한다. 목적이있다면, 그것을이루기위한조직이필요한것이다.

이론가들은“하지만파업은단지노동자의이기적이득만을대변할뿐”이라고말한다. 노동자들을파업으로내모는첫번째동인은이기심이아니다. 오히려그동인은임금을식량가격인상물만큼은올려야하는절실한필요, 즉비참함이다. 만약그노동자가파업기간수개월의궁핍을견뎌낸다면, 이것은소부르주아가되고자하는욕심에서비롯된것이아니다. 이것은그스스로가, 그부인이, 그자식들이굶어죽지않으려는몹부림이다. 그리고파업은조직의심장으로부터비롯된연대감을발전시키는데복무한다. 이것은이기심과는완전히다르다. 파업중인동지들과푼돈을나누어사용하는것은흔히목격되는일이다. 얼마전바르셀로나의건설노동자들은일 9.5 시간노동을위해투쟁하는파업대오에임금의절반가량을나누어주었다. (그리고이파업은성공했다. 만약입법을통해이를얻어내고자했다면, 이들은여전히일 11~12 시간노동에서달리고있었을것이다.) 인터내셔널의시대에발생한파업투쟁에서만큼노동계급의연대가실현된 적은역사상어느때에도없다.

무엇보다, 파업에대한낙인에반하는최대의증거는, 인터내셔널은은전히이기적인전술을주장했다는것이다. 인터내셔널은파업에서피어났다. 부르주아들과일부야심가들이인터내셔널을의회투쟁으로끌어낼때까지, 인터내셔널은파업대오의조직에그뿌리를두고있었다. 그리고이조직은지역분회와총회를통해현대사회주의의광범위한원칙을수립하고, 오늘날우리에게힘을주었다. 소위과학적사회주의자들께는죄송하지만, 오늘날이야기되는사회주의의모든개념들은인터내셔널의총회에서천명된것들이다. 파업투쟁의실천은인터내셔널내다른분파들의사회적문제제기를저해하지않았다. 오히려파업투쟁을통해이문제제기들은대중들에게더퍼져나갈수있었다.

파업이혁명적정신을일깨우지않는다는이야기도자주되곤한다. 오늘날의환경에있어, 이것의정반대야말로사실이다. 오늘날의파업투쟁은언제나군대의투입, 폭력적투쟁, 반란적행동들을포함하지않는것이 드물다. 누군가는군인들과싸우고, 다른누군가는공장으로행진한다. 1873 년스페인에서, 알코이의파업대오는코뮌을선포하고부르주아지에게사격을가했다. 1877 년미국의피츠버그에서, 파업대오는거의프랑스만한영역을점거하고, 총체적반란의전조가되였다. 아일랜드에서, 농장노동자들의파업은국가와의공개적대립을낳았다. 정부의개입에힘입어, 한공장에서반란은국가에대한반란이된다. 오늘날노동자들은사격명령을기다리는군인들의사선에놓여있다. 하지만파업을억제하기위한군대의활용은군대의사기를낮출뿐이다. 결과적으로군인들은무기를내려놓고, 그의형제들에대한싸움을거부할것이다.

결과적으로파업그자체가, 일이나뻥이없는나날들이, 사치스러운부르주아지의거리에서보내는날들이이사회적조화의시대에어떠한집회보다도더강력한사회주의적선전이될것이다. 어느날오스트리아의오스

론을 펼쳐오고있기때문이다. 이들은노동계급을이러한형태의투쟁에서
치워내고노동계급을더욱“정치적인”길로인도하려한다. 그결과는최근
프랑스전역에서무너져내린파업들로드러난다. 그리고노동자의해방은
노동자스스로이루어야한다는것발을써내려갔던이들은이제투쟁과거
리를유지하고있다. 이들은노동자들이겪고있는빈곤으로부터도거리를
유지했다. 이로써이들은헌병의군도가, 현장감독의나이프가, 판사의판
결문이된다.

파업은노동자를해방하는길이아니므로우리가신경써서는안된다고
말하는것은, 오늘날유행인듯하다. 이의견을자세히들여다보도록하자.

물론파업투쟁은그자체만으로해방의수단인것이아니다. 혁명을통
해서만, 사회의부를수용하여모두가사용하게하는것을통해서만노동자
들은그사슬을깨트릴수있다. 하지만그렇다고해서노동자들이혁명의날
까지아무것도하지말고기다려야하는가? 혁명이가능하게하려면, 노동
대중은스스로를조직해야한다. 그리고저항과파업은노동자들이조직할
수있는훌륭한수단이다. 더구나이전술은오늘날제시되고있는다른전술
들(노동자대표단구성, 노동자계급정당등) 예비해우위를가진다. 그우
위는파업투쟁은운동을탈선시키지않고, 운동의주적인자본가들을향해
계속겨누어진다는것이다. 파업과저항은사회주의자들만을조직하는것
이아니라(사회주의자들은어쨌건스스로를조직할것이다) 아직사회주
의자가되지못했지만되어야만하는이들도조직해낼것이다.

파업은모든곳에서발발하고있다. 하지만파업이고립되고각자도생
하는이상, 파업은너무자주패배한다. 파업에돌입하는노동자들이해야
하는것은스스로를조직하고, 서로와소통하며, 그조직건설에도움을주
려는이들을포용하는것이다. 이파업은중대하다. 노동자의대의에헌신
하는모든이들에게는해야할일이많다. 그리고이조직적파업의결과는운
동에참여한모두에게어마어마한만족을가져다줄것이다. 우리는모든도
시의각각의직능에대한저항의조직을건설해야한다. 우리는착취자들과
싸우기위한저항기금을건설해야한다. 우리는각도시와각직능의노동자
들의조직을묶어내어다른조직과의관계를만들어야한다. 우리는국내
적, 국제적연방을건설해야한다. 노동자의연대라는개념은단지말로그
쳐서는안된다. 이것은모든직능과국가에서실현되어야한다. 인터내셔
널은최초에민족적, 지역적선입견을, 직능간의경쟁의식을마주해야했
다. 그리고아마도, 이경쟁심리와선입견을극복할수있었다는것이인터
내셔널이우리에게준최대의선물일것이다. 우리는서로다른나라와직능
의노동자들이처음에는대립하다가도곧함께하는것을보았다. 그리고이
러한결과는당대의거대한파업투쟁으로부터비롯한조직을통해확보되
었다는것을잊어서는안된다. 사장에대한저항의조직을통해인터내셔널
은 200 만이상의노동자를한데모을수있었고, 부르주아지와정부가두
려워한강력한세력이될수있었다.

그렇다면노동자조직의목적은무엇인가? 그리고어떠한행동방침과
조직방침을적용해야하는가?

프랑스노동자들이조직하고자하는목표는단지모호하게이야기되고
있다. 하지만의심의여지가없는두가지지점이있다. 노동자총회는이지
점들을오랜토론끝에도출해냈으며, 이를바탕으로노동자들의승인을받
아냈다. 그두지점은다음과같다. 사적소유에대응하는의미에서의공동
소유 — 그리고소유를포함한체제의변혁은오직혁명적수단을통해서만
가능하다는합의였다. 사적소유의철폐는목적이고, 그수단은사회혁명
이라제시되었다. 이두지점은노동자운동의전선에있는이들이받아들여
적용하였다. 아나키즘적코뮌주의자들은이두지점들을연마하여더광범
위한정치적강령을발전시켰다. 그들은사적소유의완전한철폐를집산주
의자들보다더강하게주장했다. 그리고아나키즘적코뮌주의자들은국가
의철폐와혁명적선전을그들의목적으로포괄했다. 하지만그무엇보다우
리가동의하고있는것은(혹은최소강령의등장전에동의했던것은) 노동
자조직의목적은경제적혁명, 사회혁명이어야한다는것이다.

노동자총회의이러한결의이후새로운세계가열렸다. 프랑스프롤레
타리아트는그들이특정정부에반대하는것이아니라고선언한다. 프랑
스프롤레타리아트는더광범위하고합리적인관점을드러냈다. 그들은청
색이건, 적색이건, 백색이건, 모든자본의소유자들에게대한전쟁을선포한
다. 그들은정당을만들려하지않았다. 그들은경제적투쟁의조직을만들
려했다. 그들이요구한것은민주적개혁이아니었다. 그들은완전한경제
혁명, 사회혁명을요구했다. 레옹감베타나클레망소는더이상그들의적
이아니었다. 그들의적은감베타들과클레망소들을포함한자본이고, 자
본을유지하고그에복무하고자하는모두였다. 그들의적은사장, 자본가,
금융가와같이다른이들을팔아살아가는, 그부가노동자의피와땀으로만
들어진기생충들이었다. 그들의적은부르주아사회전반이었고, 그들의
목적은그사회를전복하는것이였다. 단지정부를전복하는것으로는부족
했다. 문제는그것보다더거대했다. 사회의부를확보하고, 그부를생산
자, 노동자들에게돌려주는것이필요불가결했다. 이를위해필요하다면,
부르주아들의시체위에서그렇게할것이였다.

이렇게목적이확립된이상, 행동의수단은자명하다. 노동자들이자본
에대항한전쟁을선포한다고? 그것을완전히봉괴시키기위해? 지금부터
라도, 노동자들은단한순간도낭비하지않고준비해야한다. 노동자들은
자본에대항한투쟁을결의해야한다. 물론급진당조차도혁명의날이하늘
에서뚝떨어져그들이정부에대한전쟁을선포할것이라기대하지는않는
다. 급진당은언제나유에도휴식도없이투쟁을계속한다. 그들은전쟁을
시작할기회를하나도놓치지않는다. 그리고만약그기회가스스로현현하
지않는다면, 스스로만들어낸다. 그리고그들은이렇게함께있어왔다. 매
일같이모든기회에이루어지는국지전들의지속된반복, 전쟁의반복이아

니고서는 결정적 전투와 승리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본에 전쟁을 선포한 이상, 우리는 이 선포고가 공허하게 끝나지 않도록, 부르주아지에 대해 동일한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자본에 대한 전투와 그 승리의 날을 예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이 순간부터 매 기회마다 국지전과 공격을 계속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이 분노로 들끓고, 투쟁에 지치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트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적, 자본주의와 착취를 시야에서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적들의 분할 책동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가는 필요하다면 이 전쟁에 참전할 것이다. 자본을 타격하지 않고 국가를 타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반대로 국가를 타격하지 않고 자본을 타격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 방식을 택해야 하는가? 만약 우리의 목적이 단순한 전쟁의 선포라면, 우리는 단순히 게갈 등만을 초래하면 된다. 이럴 정도의 수단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각개 집단은 그들의 현 위치를 지역적 조건에 맞추어 판단하고, 그 지역에 근거하여 봉기할 수 있다. 파업은 물론 소요와 행동의 수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루도록 하자. 그리고 아직 상상된 적이 없고, 표현된 적도 없는 수천 가지 전술들이 이 갈등의 장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된 것은 다음 개념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는 적은 자본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자본을 타격할 것이다.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정당 정치 캠페인과 논쟁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위대한 투쟁은 필연적으로 경제적이며, 그렇기에 우리가 행동을 집중해야 할 영역은 경제적 영역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 영역 위에 둘 때, 우리는 거대한 노동 대중이 우리의 대오에 함께 모여 노동자 동맹의 깃발 아래로 모이는 것을 볼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혁명의 그날 착취자들을 몰아낼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2 장

지난 논설에서 「반란 Le Révolté」은 현재의 자본가들로부터 자본을 탈취할 사회혁명을 목표로 하는 모임은 필연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자본에 대항하는 투쟁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만약 그 모임이 다가올 혁명을 소유의 체제에 대항하는 것으로 꿈꾸며, 그 혁명의 표어는 자본가들로부터 사회적 부를 수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의 투쟁은 모든 전선에서 자본가들에 대항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였다.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자본의 소유자들이 그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참된 적은, 사회의 적은, 진보의 적은, 자유의 적은 자본가들이라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부르주아들에 의해, 부르주아 정치에 만기 초한 끔찍한 전투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노동자들이 가끔씩 환영을 쫓아 그 소득을 포기한다면, 노동자들이 너무 자주 다른 적들에게 신경을 쏟을 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자본가들을 무릎 꿇리는 것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 또한 노동자들의 참된 적을 식별하지 못하고 환영을 쫓는 죄악을 범해 온 것이다. 새로운 정당의 결성은 경제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식으로 올바르게 아니다. 만약 노동 대중의 다수가 경제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배경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그중 요소를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한다. 만약 이러한 오해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를 분쇄하기 위해 투쟁해야지, 이것을 보존하고 괴뢰화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반대들은 제쳐두고,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의 다양한 성격에 대해 논해보자. 물론 우리의 독자들은 이러한 논의가 신문 지면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 것이다. 이 논의는 노동자 그룹 내부에서, 지역적 상황에 대한 인지와 실질적 행동을 둘러싼 변화무쌍한 조건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기사 〈반란의 정신〉에서 우리는 지난 세기의 농민과 혁명적 부르주아지가 귀족과 왕족을 향한 사상의 조류를 발전시켜 왔는지 보인바 있다. 아일랜드의 농민 동맹에 관한 기사에서, 우리는 아일랜드인 민들이 지배 계급에 대한 심고 무자비한 전쟁으로 조직할 때, 매일의 조건을 그기저에 두었음을 보인바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장과 자본가들에 대항하는 투쟁을 각 지역에 적합한 방식으로 조직해야 한다. 아일랜드에서 완벽하게 통했던 방식은 프랑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가에서 위대한 결과를 낳은 방식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활동가 그룹의 투쟁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신문 지상의 충고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방법을 찾는 것은 각개 그룹의 지역적 조건에 따른 질문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 이흥미를 가진 사건들로부터 영감을 받고 스스로의 상황을 상세히 관찰할 때 가장 적합한 투쟁의 방법론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반란」지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혁명적 투쟁의 전술이 하나 있다. 이것은 가장 우월한 방법은 아닐지 모른다. 오히려 단순히 유효한 전술일 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전술은 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자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다. 이 무기는 파업이다.

파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의 맥락에서 더욱 중요한 일이다. 지난 얼마간, 관념론자들과 노동자의 거짓 친구들은 파업에 대한은 밀한 반대